

[보도] >> 2면
기숙사 총학생회 선거 논란

[보도] >> 3면
양 캠퍼스 총학은 없다

[기획] >> 5면
20대들 투표를 너무 안 한다?!

[인물] >> 8면
무자개 넘어서



5면 커버스토리

4월 13일은 총선이다. 선거가 끝나면 20대의 투표율은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20대들은 언제나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 기사에서 이른바 '20대 비판론'으로 불리는 20대 투표율 저조 현상을 살펴본다. 또한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프랑스 대학생 투표율과 우리

나라 대학생 투표율, 그리고 등록금'의 진실을 알아본다. 20대들은 정말로 선거일에 놀러나갈까?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총선 참여 의지를 알아봤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우리학교 새롭게 바꿀 김종철 이사장 취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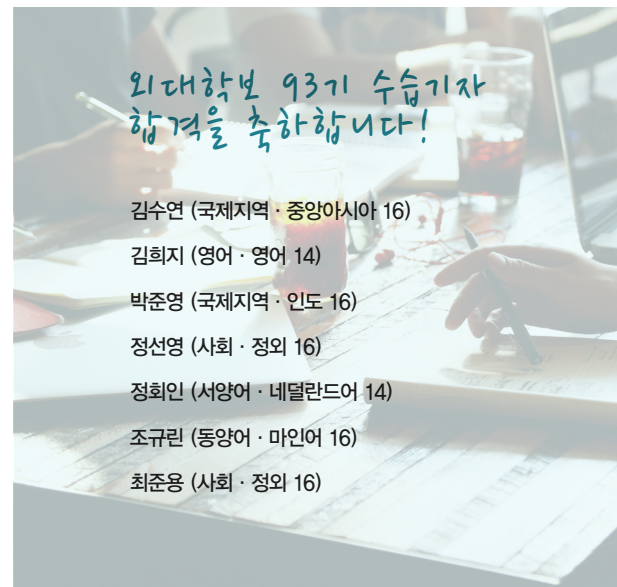
김종철 제8대 이사장 취임식이 지난 3월 30일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열렸다. 이 날, 김종철 이사장은 2005학년도 3월부터 2016학년도 3월까지 재임한 이남주 이사장의 자리를 물려받게 됐다. 김종철 이사장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며 2004학년도부터 우리학교 재단법인 동원육영회에서 이사직을 겸임해왔다.

식은 개회사 · 약력소개 · 취임사 · 축사 · 교가제창 ·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엔 김인철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권순한 총동문회장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김종철 이사장의 임기는 이번 해 3월 30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다.

이 날 김종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학교의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우리학교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를 인류 평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교로 만

들기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세 가지 포부를 밝혔다. 또, "전통 있는 명문사학의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의 이사장직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우리학교를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김인철 총장은 축사에서 "김종철 이사장이 학교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총장으로서 우리학교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취임식에 참여한 이슬(서양어 · 스텐어 13)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롭게 이사장이 취임한 만큼 앞으로 우리학교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란다"며 축하를 보냈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외대학보 93기 수습기자
합격을 축하합니다!

김수연 (국제지역 · 중앙아시아 16)

김희지 (영어 · 영어 14)

박준영 (국제지역 · 인도 16)

정선영 (사회 · 정외 16)

정희인 (서양어 · 네덜란드어 14)

조규민 (동양어 · 마인어 16)

최준용 (사회 · 정외 16)

〈바로 잡습니다〉

지난 3월 23일 발행된 본지 993호 9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기사를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수정합니다.

버블은 기본적으로 한 번 생겨나면 붕괴되지 않는다.

→ 버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성되면 붕괴 된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일본의 금융정책이 '마이너스 금리'다

→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 연장선상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엔고에서 엔저로 돌아서며 현재는 추세가 바뀌고 있다.

→ 지금 엔저에서 엔고로 돌아서고 있다.

내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 내수와 비교했을 때 무역의존도가 낮은 일본

달러를 통해 실적을 올린 기업들이, 엔저의 효과를 전

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모순점이 있

어 이것이 성장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 달러를 통해 실적을 올린 기업들이, 엔저의 효과를 전혀 보

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 이것이 성장전

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원래 목표는

2년 안에 물가수준 2%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원래 목표는

2년 안에 물가 상승률을 2%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보통은 1년 안에 극복된다.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장기적인 현상이라

기보다 단기적인 현상일 경우가 많다.

세계대공황도 3년 만에 극복됐다.

→ 소와공황(세계대공황의 일본버전)은 3년도 안돼 극복됐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금융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끝없이 오른다.

→ 금융정책은 물가상승만 야기할 뿐이다.

로컬리티 챌린지로 우리도 이젠 지역 전문가!

지난 3월 29일 글로벌캠퍼스 공학관에서 해외 탐사 프로그램인 ‘로컬리티 챌린지(Locality Challenge) 최종 탐사보고회’가 2회를 맞이했다. 이번 보고회의 개최자는 교육부 CK-II 사업인 대학특성화사업 국제화부문에 선정된「Locality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사업단이다. 로컬리티 챌린지는 이 사업단의 부속교육프로그램으로써 본인이 전공한 지역을 탐색해 각 나라의 지역적 가치를 찾는데 취지가 있다.

로컬리티 중심의 교육은 단일 언어권의 경계를 넘어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역사·지리·문명사적 단위를 지칭한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국제지역대학의 6개 학과(프랑스학과, 러시아학과, 브라질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인도학과, 한국학과)가 속해 있으며 특강 활성화, 학술 지원, 언어클리닉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학생들은 위 과와 연계된 나라인 △마그레브(Maghreb,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서북부 지역) △유라시아(Eurasia,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 △브라질-중남미 △인도-남아시아 등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역 탐방을 마친 학생들은 최종 탐사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발표한다.



▲로컬리티 챌린지 최종탐사보고회에서 학생들이 <그랜드 슬램>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이 날 개최된 행사엔 40명의 재학생이 11개 팀을 이뤄 탐사 발표를 마쳤다. 세 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를 끝으로 총 8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최우수상은 브라질-중남미 트랙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와인사업을 탐

사주제로 삼은 <치카 보니파>팀이 차지했다. <비프비프>팀(마그레브 트랙), <엑스쿠르시아>팀(유라시아 트랙)이 공동 우수상을, <그랜드 슬램>팀(인도-남아시아 트랙), <레 끌리스>팀(마그레브 트랙), <Young Idiots>팀(인도-남아시아 트랙), <늘보택과 언어학자들>팀(유라시아 트랙), <짜오토랑스>팀(한국-동아시아 트랙)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치카 보니파>팀의 이동현(국제지역·브라질 13)양은 “조반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힘들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로컬리티 챌린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로컬리티 사업단의 오영민 책임 연구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고 창의적인 탐사가 가능하다”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에게 지역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말 많았던 기숙사 총사생회장단 선거, 결론은 ‘플러스’로

지난 3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됐던 글로벌캠퍼스 제4대 기숙사 총사생회장단 선거에서 ‘플러스 사생회’ 선거본부(이하 선본)가 당선됐다. ‘플러스 사생회’는 총 투표자수 1,008명 중 찬성 827표로 당선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 3월 18일 제3대 기숙사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위원장이 사퇴사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면서부터다. 사퇴한 기숙사 중선관위장은 사퇴사에서 총사생회장단 선거기간 중 최진영 기숙사 운영 학사장이 1번 후보(플러스 선본)의 결격사유를 제시하며 2번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최진영 학사장이 말한 결격사유는 ‘플러스’ 선본의 여사생회장 후보가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선거 세칙에 따르면 총사생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피선거권자, 즉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만 가능하다. 전 기숙사 중선관위장은 최진영 학사장이 “1번 후보의 출마 자격을 재심사하도록 했으며 지시 불이행시 사생회를 해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

다. 여기에 기숙사 운영팀장으로부터 “선거 진행상황을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자”는 발언과 함께 “선거 진행상황을 개인적으로 보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숙사 중선관위는 2013년,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총사생회장단으로 선출된 전례를 근거로 기호 1번 후보의 출마를 결정했다. 전 기숙사 중선관위장은 이를 학사장의 권한으로 번복시키려 했으며, 이는 학생자치기구인 기숙사 총사생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판단해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기숙사 중선관위의 권한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임받아 공동 선거 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진행했다.

2번 후보는 후보로서의 주의력과 자질 결여를 근거로 공선관위로부터 경고 2회를 받았다. 그러나 후보자 정견토론회를 앞둔 3월 22일, 2번 후보는 전 기숙사 중선관위장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학사장이나 기숙사 운영팀과의 유착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사퇴했다. 최진영 학사장은 “기숙사 운영 학사장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준 것”이라며 “선거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김태문 기숙사 운영팀장은 “기숙사생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지하자고 제안 했을 뿐”이라며 “운영팀으로서 알아야 할 후보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어본 것이 선거 개입으로 해석 돼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내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기자 92youngx@hufs.ac.kr

궁금해? 현직자에게 물어봐!

외국계기업 현직자가 말하는 입사전략
동문선배의 방송사 공채 이야기

이번 달 12일 서울캠퍼스에서 ‘우리학교 선배와 함께 하는 방송사 공채 이야기’ 특강이 열린다. 최동빈(프랑스어 99) 전 MBC 아나운서와 김형균(아랍어 99) 현 롯데홈쇼핑 쇼호스트가 강의를 진행한다. 특강은 △방송사 공채 이야기(면접의 노하우) △선배와의 대화(아나운서, 쇼호스트 준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14일 오후 1시부터는 글로벌캠퍼스 공학관 207호에서 외국계기업 입사 전략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총 3개의 릴레이특강 가운데 두 번째 강이다. 이어 28일 오후 3시 30분에 세 번째 특강이 열린다. 이 릴레이 특강은 각 기업의 현직 인사부장이 진행한다.

서울캠퍼스에서도 28일 오후 3시, 은지선 바이어스도 트프코리아 인사과장의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은 △외국계 입사전략 △입사지원서 디자인 △면접준비전략(모의면접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정용호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팀장은 “학생들에게는 직무현직자 특강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며 “현직자인 만큼 학생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서울캠퍼스	
일시	내용
4/12 14:00 ~ 16:00 오바마홀	동문선배와 함께하는 방송사 공채 이야기
4/28 15:00 ~ 18:00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현직자에게 듣는 외국계 기업 취업전략

글로벌캠퍼스	
일시	내용
4/14 13:00 ~ 15:20 공학관(207호)	현직자에게 듣는 외국계 기업 입사전략 특강
4/28 15:00 ~ 18:00 오바마홀 국제회의실	현직자에게 듣는 외국계 기업 입사전략 특강

벚꽃보다 설레는 배움의 설렘

효과적인 공부법 SQ4R 소개

지난 3월 8일 양 캠퍼스에서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특강이 진행됐다. 최정금 최정금학습클리닉 소장이 ‘배움의 설렘 회복하기:인지심리적 접근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강은 △학습의 정의 및 기본원리 △심리사회적 발달과업 △적절한 주의집중력이란 무엇인가 △시간 관리와 학습계획 △SQ4R 순서로 진행됐다. 최정금 소장은 특히 학습방법에 따라 학습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소개했다. △가르치기 △실제 해보기 △집단토의 △시범강의 보기 △시청각 수업듣기 △책읽기 △강의듣기 순으로 효율적인데, ‘가르치기’는 평균 학습효과가 90%인 반면, ‘강의듣기’는 5%에 그친다.

이어 최정금 소장은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전

략으로 ‘SQ4R’을 강조했다. ‘SQ4R’은 Survey(훑어보기, 윤곽잡기), Question(질문하기), Read(읽기), Recite(암송하기, 되뇌이기), Review(복습하기), Write(쓰기)를 의미한다. 우선 내용의 전체적인 윤곽을 훑어보고, 의문을 가지며, 핵심어에 집중해 읽는다. 그 다음 책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되풀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한 뒤 마지막으로 쓰며 정리하는 것이 ‘SQ4R’ 학습법이다. 최정금 소장은 “올바른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SQ4R’ 공부법을 강조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타요 타요 버스 타요!

광역버스 모현사거리 - 공학관 양방향 무료이용
광주역 셔틀버스 검토 중

이번 달 1일부터 글로벌캠퍼스 광역버스 무료탑승이 시행됐다. 운행구간은 글로벌캠퍼스 승차장에서 모현사거리까지다. 단, 무료 이용 구간이 지나도 내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임승차 하는 학생이 3회 적발될 시, 학교와 버스회사 간의 무료 탑승 계약은 해지된다. 글로벌캠퍼스 행정지원처는 “학생 및 캠퍼스를 방문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글로벌캠퍼스-광주역 구간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캠퍼스 비대위가 재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광주역 개통시 등하교에 광주역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 88%를 차지했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개통되는 광주역은 올해 7월 개통 예정이다.

김수연 수습기자 93assembly@hufs.ac.kr

끝나지 않은 총학생회의 겨울

양 캠퍼스 총학 일 년 간 비대위 체제 이어가게 돼 성적 평가방식, 총장 선출권 등 논의 사항 많지만 비대위로 여력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난 해 11월 있었던 양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무산의 악몽이 3월 보궐선거로 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두 총학 모두 1년 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캠퍼스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제50대 총학 선거후보자 등록기간에 출마한 선거본부(이하 선본)가 없어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이번 해 3월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3월 21일,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기한 까지 등록한 선본이 없어 이번 보궐선거 또한 무산됐다. 선거무산 후 7일 이내에 비대위를 발족해야한다는 총학 세칙에 따라 3월 22일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비대위 설립위원회(이하 비대위 설립위)를 설립하고 자정을 넘기며 회의를 계속했지만 비대위장 후보자가 없어 회의를 중단했다. 3월 24일에 서 25일로 이어진 회의에서도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

아 비대위장 후보 등록과 선출에 관한 안전만을 다른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후보자 등록은 없었지만, 3월 28일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이슬(서양어 · 스칸어 13) 양과 김형환(사회 · 미디어 12) 군이 중운위 자체 투표를 통해 각각 비대위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지난 해 11월 있었던 제37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울’ 선거본부가 출마를 선언했

다. 그러나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세칙 제 60조(유효투표율은 단독선거 시 전체 선거인의 50%이상)에 따라 개표조차 하지 못 한 채 선거가 무산되고 비대위가 구성됐다. 글로벌캠퍼스 비대위는 이번 3월 보궐선거를 진행하려했으나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이었던 3월 11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어 서울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선거마저 무산됐다. 글로벌캠퍼스 중운위는 자체 투표를 통해 김대홍(국제지역 · 인도 11) 군을 비대위

장으로 선출해 다음 총학 선거가 있을 오는 11월까지 비대위가 글로벌캠퍼스 총학을 채워가게 됐다.

학생을 대표해 학교와 성적 평가방식, 총장 선출권 등 논의해야 할 중요 사안이 많은 현 시점에서 양 캠퍼스 총학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캠퍼스 비대위원장단은 “비대위가 정식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은 아니지만, 총학에 준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히며 “비대위를 포함한 중운위원들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양 캠퍼스 총학이 공석이 된 사태에 대해 학생들의 학내 정치 무관심이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내 정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영환 기자 92youngx@hufs.ac.kr

리퍼트 대사와 솔직한 대화

마크 리퍼트 대사 오바마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미팅 가져



▲24일 타운홀미팅에서 마크 리퍼트 대사가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 24일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이하 리퍼트) 현 주한미국대사를 초청해 재학생들과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토론의 한 형식을 일컫는 일반명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대통령이 우리학교를 방문한지 4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렸다.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은 교직원 및 재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퍼트 대사와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리퍼트 대사는 “반갑습니다”라는 한국어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리퍼트 대사는 양국 간의 안보 및 경제, 외교관계의 확대 그리고 상호 문화적인 교감을 강조했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미국과 비교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리퍼트 대사는 “글로벌 경제 침체 속 직업시장 역시 위축되고 있어 한국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 정부가 청년 실업에 맞춰 정책을 제정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 학생의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동은 핵확산금지 조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란에 대한 단계적 핵 감축이행을 예로 들며 “북한에 있어 폭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는 “대사에게는 방문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왜 한국을 선택한 것이냐”며 한국 생활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대사는 “한국의 불금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에 있어 핵심국가”라며 “미국이 외교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한 조건을 요청한 학생의 질문에는 멀티태스킹 능력, 팀워크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강조했다. 또, “20대는 어떤 실패를 겪어도 회복할 힘이 있으므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남윤(영어 · 영문 11) 군은 “학생들의 다소 민감한 질문에도 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런 자리에 처음 참가했는데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민아(서양어 · 독일어 14) 양은 “리퍼트 대사가 질문에 정성스럽게 대답해줘 인상 깊었다”며 “핵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갈 길 먼 비대위

공평위 · 이사직 성명서 의결 등 과제 많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에 따라 총학생회(이하 총학) 자치기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의 활동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평위원 총학 독립기구로써 임기 중인 총학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기구이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대 총학이 실질적인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관해 제49대 총학 함께등대(이하 전 총학)는 임기를 마치기 전 설립위원장을 인준해 운영을 본격화 하려고 했다. 그러나 비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 해 실질적인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슬(서양어 · 스칸어 13)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총학이 설립되기 전까지 약 1년간 설립위원회 체제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22일 전 총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사회와 관련해 성명을 의결했다. 이는 동원육영회 구성원들의 재단 운영을 우려해 지난 1월 18일 1차 성명을 낸 것에 이은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 재단의 사유화를 반대하며 동원육영회의 공영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학교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간섭 거부와 동원육영회 이사직의 임기 제한”을 요구했다. 이번 비대위는 전 총학의 성명서를 토대로 뜻을 이어갈 예정이나 비대위 체제인 만큼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추진희 기자 92clelia@hufs.ac.kr

학교에 우리 목소리를 전해라

글로벌캠퍼스 정총 정족수 충족으로 성사 10대 교육환경개선안 안전 논의 및 결의 진행돼

지난 6일 오후 6시 글로벌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제 37 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최하는 상반기 정기총회(이하 정총)가 열렸다. 이날 정총은 전체 재학생 7536명 중 1836명이 참여했다. 이번 정총의 주요 안건은 크게 △성적평가방식 개정 △인경관 리모델링에 대한 학생 측 의견 반영 요구 △자연대 경사로 계단 설치 △모든 단과대학 휴면부스 설치 요구 등에 관한 논의 및 결의다. 정총에서는 우리학교만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로운 성적평가 방식을 적용한 지 1년이 넘는 시점이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정통을 통해 △재수강 △B유형 및 폐강기준 △원어강의 △회화강의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사항 등이 개선안에 반영됐다.

이어 인문경상관(이하 인경관)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인경관은 1985년에 완공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해 냉난방, 화장실, 방역 문제 등이 대두됐다. 비대위는 현재 사용 중인 라디에이터 및 스탠드형 에어컨 대신 통합냉 · 난방 DHP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할 것과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배관 및 환기관련

시설 정비 및 지속적인 방역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이었던 자연대 경사로는 겨울철 도로 결빙 및 가파른 경사로 인해 사고가 빈번한 장소다. 비대위는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뿐 아니라 결빙 현상을 방지하고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논의 중이다.

공과대학 휴면 실패에 대한 안전 논의도 있었다. 정총에 앞서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휴면구역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비대위는 공학관과 어문학관에 시범적으로 휴면부스를 설치해 모든 단과대학에 휴면부스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총은 비대위가 제시한 10건의 안건이 모두 결의되며 마무리됐다. 정총에 참석한 오혜령(공과 · 산경 14) 양은 “비대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 안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김하영(동유럽 · 우크라이나 15) 양은 “정총을 통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비대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시현 기자 91qhdodb@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16년 하반기 외국어 교육생 모집

1. 2016년 하반기 일정

구분	20주 과정		10주 과정	
	주간(80기)	야간(84기)	107기	108기
접수기간	2016. 06. 13(월) 부터~		2016. 06. 20(월) 부터~	2016. 08. 22(월) 부터~
교육기간	08. 01(월)~12. 16(금)		08. 01(월)~10. 07(금)	10. 10(월)~12. 16(금)
교육시간	09:30~16:20 1일 6시간 (월~금/주5일)	18:40~21:30 1일 3시간 (월~금/주5일)	19:40~21:30 1일 2시간 (월, 화, 목, 금/주4일)	19:40~21:30 1일 2시간 (월, 화, 목, 금/주4일)
총 교육사수	총 600시간		총 80시간	총 80시간
반편성시험	07. 16(토) 10:00 외국어연수평가원		07. 23(토) 10:00 외국어연수평가원	10. 01(토) 10:00 외국어연수평가원

2. 모집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외

3.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 STEP 2 : 접수확인
-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24시간 접수 가능)
- 수강신청 바로가기 : 수강신청 바로가기→과정 및 언어선택→원서작성→교육비 결제
- 교육비 결제 : 인터넷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완료 후 최종 접수여부를 문의 및 확인
- 무통장 입금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로 정확히 입금 후 입금확인

4. 반편성 시험 (레벨테스트)

- 시험내용 : 영어(청취, 독해, 인터뷰), 그 외 외국어(독해, 인터뷰)
- 영어(LC 15문항, RC 30문항), 기타 외국어(RC 40~50문항)
- 인터뷰는 1:1 원어민 인터뷰로 진행되며 약 5~10분 소요
- 총 소요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단, 시험 내용과 방식은 교육과정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취소 및 환불안내

- 개강일 전까지 : 전액(단, 전월제 제외)
- 20주 : 개강 후 6주까지 실입금액x60%
- 10주 : 개강 후 2주까지 실입금액x70%

- 환불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 이후 일체 환불이 되지 않음.
- 환불시 열린광장-자료실에서 등록취소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및 취소확인

6. 기타사항

- 전체 신청자 반편성 시험 실시 및 수준별 반 구성
- 언어별 적정인원 모집시 개설되며 미달시 개설되지 않음
- 위 언어 외 기타 외국어 및 맞춤형 기업체/기관 위탁과정은 별도 문의
- 과정 수료시 수료증 발급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TEL. 02-2173-2524~5 FAX. 02-962-0575
(우)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FOREIGN LANGUAGE TRAINING & TESTING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터키와 EU의 ‘밀당’ 사랑



김종일
아세아연합신학대
학교 전임교수 및
한국외대 외래교수

◆제국의 패망과 케말의 터키 공화국

돌궐, 흉노, 셀주크 터키를 잇는 튀르크 제국, 이슬람의 수용과 전파(11C), 비잔틴제국의 정복(15C), 세계사에서 근세로의 시작(15C), 유럽의 지리상 발견(15C)과 산업혁명(18C)의 간접적 원인제공, 중동을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동부유럽의 정복과 지배, 이 모든 서술이 하나의 이름을 가리킨다. 바로 중동을 중심으로 수 세기를 풍미했던 오스만 제국(1299~1922)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독일과 함께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꿨다. 제국 내 모든 영토가 갈기갈기 나뉘었으며 또 하나의 거대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결사구국의 비장한 마음을 가진 한 영웅이 등장한다. 그가 바로 터키의 국부 케말 파샤(M. Kemal ATATÜRK, 1881~1938)이며 터키공화국(1923)의 시작이다. 그를 통해 공화국의 모든 기본 이념과 정체성이 확립됐으며 향후 터키가 나아가야 할 좌표가 제시됐다. 이렇듯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시작한 그를 이야기 하지 않고는 터키를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세속주의(secularism)로의 시작

이토록 위대하고 터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온 케말 파샤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국책(國策)이 바로 세속주의다. 국가의 모든 이념들과 정체성이 이 세속주의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는 술탄 왕정체제에 모순과 허점을 발견한 사람이었으며 세속주의 공화국의 시작은 그의 유일한 대안이였다.

이 세속주의를 받쳐주는 두 기본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서구화’이며 다른 하나는 ‘탈 이슬람화’이다. 이 둘은 상호보완적이며 친화적이다. 터키의 세속주의는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 이면서도 정치에 이슬람을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탈 이슬람 의지의 천명이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강력한 서구화 추진이었다. 여기에 서부터 공화국 건국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터키-EU의 ‘밀당’ 역사가 시작된다.

◆두 얼굴의 터키, 드러낸 비굴함과 숨긴 야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돼 온 터키의 EU를 향한 끈질긴 구애를 가리켜 터키 경제 악순환의 늪으로부터의 탈피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이유들이 더 숨겨져 있다. 먼저 터키의 민족적 자긍심을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터키는 과거 대 제국을 다스렸던 오스만의 후손들로서 역사나 문화적으로 아랍 국가들보다는 한수 우위라는 우월감과 자긍심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비록 아랍에 의해 시작된 이슬람을 받아들인긴 했으나 결코 아랍에 종속되거나 좌우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터키의 EU 가입의지는 이슬람이 국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른 아랍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주려는 강한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다른 숨은 이유로 국방수호와 안보에 대한 터키의 강한 국가적 의지가 있다. 터키 공화국이 역대 외교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사안은 바로 구소련과의 관계였다. 즉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당시 소련의 남하정책으로부터 터키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었다. 이에 터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회원국 가입 성공(1952)은 터키로 하여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 줬으며 그 여세를 몰아 EU 정회원 가입을 공화국 최대 과업으로 정했다.

마지막 숨은 이유를 터키의 종교적 야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터키가 세속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와는 구별된다고 해서 이슬람 배경주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터키는 과거 오스만 제국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세계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슬람을 발전시켜 왔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이슬람 포교를 수행해 온 나라다. 터키의 끈질긴 EU 가입 의지 뒤에 자신의 고유문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유럽에 종속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이슬람화에 일조하려는 종교적 사명과 야심이 있다. 이는 지금 터키 공화국 사상 초유의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4선 16년의 연정에 성공한 터키의 현 집권당(AKP)이 가지고 있는 대(對)EU 정책에서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지금의 터키 집권당은 공화국 사상 가장 강한 이슬람 성향을 보이면서 그동안 줄곧 터키 세속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오던 여성의 hijab 착용금지 법안을 국회에서 폐지시키는 등 세속주의에 가장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어느 정권보다도 EU

가입에 더욱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현 터키 집권당이기 때문이다.

◆실(失)을 감수하며 득(得)을 향해

터키의 EU 가입을 둘러싸고 터키와 EU 사이의 끊임없는 ‘밀당’ 외교에서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자국의 실리추구’이며 이는 전 세계 국가 간 외교에서 감춰진 부동의 목표이다. 그렇다면 양측의 득실은 무엇일까? EU로서는 유일한 무슬림 국가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해 초래할 수 있을 유럽 고유의 정체성 상실을 감수해야 하는 대신 향후 터키를 통한 중동과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지속적인 자원 확보가 더 원활해 질 것이다. 터키로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실리추구를 위한 여러 국익이 존재한다. 하지만 터키로서는 무슬림 정체성에 타격을 줄 정도로 EU를 향한 끈질긴 구애 작전으로 국가적 자존심에 이미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도 컸을 것이다. 또한 주변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지탄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됐을 것이다.

실리추구 측면에서 양측의 득실을 논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이며 지금 양측 모두는 ‘밀당’의 혼란 속에서도 선점의 적시를 노리고 있다.

◆과연 터키의 EU 가입은 가능한가?

필자는 그동안 터키의 끈질긴 가입의지와 이를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져왔다. 왜냐하면 그간의 정황상 가입에 대한 성공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시리아 난민 사태라는 변수가 하나 발생했다. 지금까지 20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국경을 통해 터키 안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유럽은 더 이상 터키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을 원치 않는다. 터키로서도 날로 늘어나는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와 사회적 문제들로 큰 고민 가운데 있다.

이 상황에서 EU의 긴급 제의가 하나 터키 측에 전해졌다.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하겠으며 더 나아가 터키의 EU 가입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지금 터키는 EU 가입의 마지막 관문을 넘으려는 문턱에 서서 공화국 사상 최고의 승물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에 이제 막 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수많은 국내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옮긴 그 걸음은 결코 가볍지 만은 않을 것이다.

태국에서 배운 스승에 대한 참된 예(禮)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태국의 탐파삿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7+1 프로그램으로 수학했다. 지금은 다시 평범한 대학생이 됐지만 태국에서 나는 특별한 대학생이었다. 평범한 일도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겪어보는 나에겐 하나하나가 특별한 경험이었다.

태국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교복을 입는다. 평상시 사복도 가능하지만 시험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엔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 교복을 입으니 한국에서의 고민들이 다 없어지고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했다. 여자 교복은 블라우스와 치마, 남자 교복은 블라우스와 바지로 이뤄져 있다. 취향에 따라 상하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탐파삿 대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는 지난해 열린 스승의 날 행사였다. 태국의 스승의 날은 매해 1월 16일이다. 하지만 그 기간이 방학인데다 8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 때문에 9월 17일에 스승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학생들은 스승의 날 전부터 화환(태국에서 큰 꽃 묶음을 이르는 말)을 만든다. 화환엔 가지꽃, 우산잔디, 소금꽃, 쌀알꽃이 많이 쓰인다. 가지꽃은 항상 아래로 향해있는데 배움에 있어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학생의 자세를 의미한다. 우산잔디는 다육식물로 쉽게 씨를 퍼뜨리는 모습이 학생들이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모습과 유사해 화환(태국에서 작은 꽃묶음을 이르는 말)에 자주 쓰인다. 소금꽃은 끝이 예리한데 이는 예리한 지혜를 뜻한다. 규율의 상징인 쌀알꽃은 우리에게 있는 게으름과 나쁜 품행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 스승의 날에 학생으로서의 태도를 다짐하는 꽃들이 쓰인다는 점이 특이했다.

스승의 날, 학생들은 태국식 전통 인사 ‘와이’ (손을 모아 합장하는 인사법)로 교수님께 존경을 표했다. 와이는 두 손바닥과 손끝을 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인사법이다. 비슷한 나이 또래에게는 턱 위치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교수님께는 손을 코 높이까지 올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경배를 드려도 무관하지만 행사에선 학생대표와 신입생들만 경배를 드린다. 대표로 뽑힌 학생들은 단상 위에 앉아 계신 교수님들께 화향을 드린 후 경배를 하고 무릎을 꿇는다. 답례로 교수님들은 탐파삿 대학교에서의 첫 학기이자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선생님께 처음 얼굴을 보인 학생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조그만 화환을 손에 쥐고 단상 위에 올라가자 너무 긴장됐지만 교수님들의 덕담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큰 감동을 받았다.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 케이크도 샀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후 쑥스럽다는 핑계로 스승의 날에 소홀했었다. 그래서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탐파삿대학교에 다녀온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기화평(통번역·태국어 13) 양 태국 교환학생 파견활동 수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비고
특별전형	2016.4.4(월)~4.8(금)	4.30(토) 10:00	5.19(목) 14:00	5.23(월)~5.27(금)	
일반전형	2016.5.09(월)~5.13(금)	5.28(토) 10:00	6.16(목) 14:00	6.20(월)~6.24(목)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6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지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다. 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라. 대학원생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사.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4.13

다시 보는 ‘20대 비판론’

“이들(20대, 30대)의 투표율 하락은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비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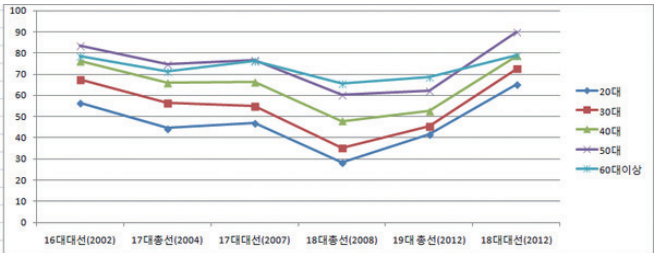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있다. 투표를 앞두고 언제나 그랬듯 20대 투표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대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성향 정당이 유리하다는 정치계의 정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대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 선거 마다 낮은 모습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을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진보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20대의 낮은 투표율이 거론된다.

같은 논리로 20대의 정치무관심을 비난하는 말로 이른바 ‘20대 비판론’이 있다. 2009년 김용민PD는 충남대학교신문에 “너희가 원하는 게 있으면 투표를 해서 뽑아라”,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며 “어설픈 저항했다가는 더 가혹한 보복만 당할 것이다.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졸업해서, 삽 들고 안전한 삶의 길을 모색해 나가길 바랄 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20대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관심도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가 자신을 배려해주길 바라는가? 청년의 정치무관심이 오늘날 청년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의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최근에는 ‘프랑스 대학생 투표율은 83%다. 하지만 한국은 36%다. 프랑스 대학 등록금이 저렴한 것은 대학생들의 높은 투표율과 관련이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인들이 대학생의 눈치를 보겠나?’는 글이 화제가 됐다. 마찬가지로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지적한 글이었다.

◆20대들은 언제나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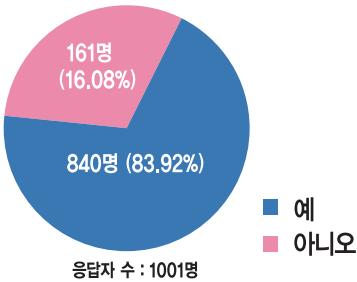
대학생의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대학생’의 투표율은 확인 할 수 없다. 투표 결과를 직업별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투표율’이 낮은지 높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 20대의 투표율은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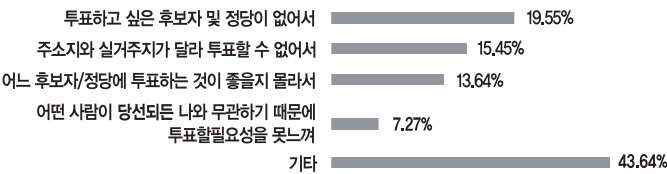
〈표1: 16~18대 대선 및 17~19대 총선 연령별 투표율〉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총 6번의 선거에서 20대는 모두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6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의 전국투표율은 70.8%였다. 20대 투표율은 56%였다. 17대 대선 전국투표율은 63%였고 20대 투표율은 47%였다. 18대 대선

4월 13일 총선에 참여할 예정인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은 전국투표율 75.8%, 20대 68.5%이다.

‘20대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승리한다’는 명제는 항상 옳을까? 최근 3번의 대선 결과를 살펴보자. 전국투표율 대비 20대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18, 16, 17대 대선 순으로 20대의 투표 참여가 높았다. 18대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70%에 가까웠다. 대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됐다. 20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성향의 후보가 유리하다는 통념이 무조건 옳지만은 않다.

프랑스 대학생의 투표율과 한국 대학생의 투표율 비교도 살펴보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프랑스 대선 20대 투표율은 80% 수준이었고 같은 해 한국 18대 대선은 68.5%였다. 프랑스 투표율에 못 미치지만 널리 퍼진 프랑스 등록금 논쟁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현상을 오로지 지금 20대(1996~1987년생)들에게 돌리는 것도 무리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투표율도 20대가 가장 낮았다. 그때 20대들은 지금 30대다.

지금 40대, 50대가 20대였을 때는 어땠을까? 1996년 15대 총선 전국투표율은 63.9%였다. 20대 투표율은 44.3%였다. 1992년 14대 총선 전국투표율은 71.9%였고 20대는 56.8%였다. 같은 해 치러진 14대 대선에서도 당시 20대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20대 투표율 최저 현상은 2016년 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6년 6월 28일 한겨레는 ‘이들(20대, 30대)의 투표율 하락은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당시 ‘이들’은 1970~1980년생이며 지금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는 40~50대다.

◆우리학교 투표 의향

본지에서 5일부터 8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840명(83.92%)이 ‘예’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투표를 하는 이유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다’, ‘투표는 의무다’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한편, 같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16.08%였다.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 및 정당이 없어서’가 전체 213명 가운데 43명(19.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밖에 ‘내 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어서’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투표할 수 없어서’를 선택한 응답자는 34명(15.45%)이었는데, 8~9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현재 사는 곳과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선거 연령이 되지 않아서’, ‘해외유학 중이라 번거로워서’가 가장 많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20대의 정치 무관심 현상의 결과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20대의 대부분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기성세대들이 비판하듯이 ‘선거일에 놀러가는’ 20대는 적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선거 당일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1명이었다.

◆20대는 변한다

20대의 투표율은 언제나 낮았다. 언제나 낮았으니 지금 20대 투표율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아니다. 아직도 낮아서 문제다. 하지만 20대들은 변하고 있다.

유시민 전 국회의원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기업에서 존중하듯, 정당 역시도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그 중에서도 투표하는 유권자를 위주로 관심이 있다”며 “투표를 안 하는 20~30대에겐 정치인들이 잘 보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등록금, 대학 주변 주거 문제, 교내 복지 문제를 개선하려면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0대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한겨레신문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기획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500명 가운데 72.2%가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24.1%가 “가급적 참여”, 3.7%가 “참여 생각 없음”이라고 답했다.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한겨레가 보여준 여론조사와 결과와 같은 20대의 높은 투표 의사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대 무관심론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4월 13일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국제지역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1.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2. 신입생 장학금 전원 지급(성적에 따른 차등 지급)
3. 성적 장학금(재학생의 80% 수혜)
4. 학과별 추천 장학금 등 다양한 기타 장학제도
5. 본교출신조교 등 다양한 조교활동으로 학비조달
6.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 2016년 입학생부터 비노문트랙 운영 (일부학과 제외)

모집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모집학과

석사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 아세안학과, 중동 아프리카학과, 러시아 CIS학과, 유럽연합학과, 미국 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

박사

국제지역학과, 한국학과, 국제관계학과

석박사통합

국제지역학과, 한국학과

모집일정

	1차전형	2차전형
원서접수	2016.4.5(화)~4.14(목)	2016.5.18(수)~5.26(목)
면접전형	2016.4.30(토)	2016.6.11(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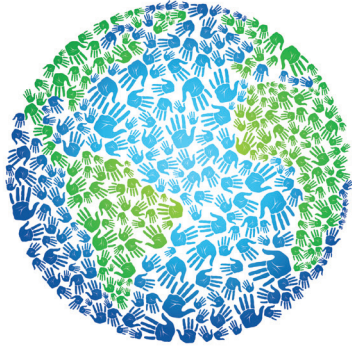
문의처 | TEL : 02)2173-2448, 2449, 2434 / FAX : 02)2173-3369
E-Mail : hufsgsias@hufs.ac.kr / Website : http://gsias.hufs.ac.kr



누구입니까

글로벌 보험회사의 꿈을 완성시킬 사람!

A.M.Best 신용평가 A++(2015년 11월 기준)
S&P 신용평가 AA-(2015년 9월 기준)
15년 중국 상해·선안지점 설립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확보한 외자계 손보사(1995년 4월 기준)
11개국 22개 거점 보유(7개국, 8지점, 7사무소)



상생화재의 꿈은 국내에 멈추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로 더 큰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가는 길에 당신의 젊음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상생화재와 함께 해 주세요

1588-5114 | samsungfire.com

당신에게 좋은보험

상생화재

SAMSUNG



과학을 만나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다시 시작하며

봄이 화사하게 교정을 물들이고 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길을 가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993호에 내가 쓴 학술 기사 때문이다. 학술면은 정기자 시절부터 내가 가장 많이 쓴 기사다. 나의 첫 기획 기사 또한 전종근 교수님의 학술기사였다. 어쩌다 학술을 많이 쓰게 된 건지 이유는 모르겠다. 매 호마다 내가 학술기사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나는 학술기사 제언서를 들고 전체회의에 참여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교수님과 연락해 인터뷰까지 마쳤다. 교수님은 경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나를 위해 성심성의껏 설명해주셨다. 그런데 지난호에 크게 오보가 났다. 학보와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내가 쓴 기사로 인해 학보는 나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회수됐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내가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 기사를 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다. 그런데 ‘차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그런 일을 벌인 것이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통하지 않을 일이다.

사실 오보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을 가장 많이 후회했다. 같은 동기였던 3명이 각자 자기 길을 찾아 떠나갈 때 나는 학보에 남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1000호를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는 의지도 있었지만 학보 기자 중 누군가 나로 인해 기사를 쓰는 수고를 덜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5명에서 학보의 12면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압박해왔다. 결국 내가 낸 오보로 인해 10년 동안 전례 없었던 학보 회수 사태가 벌어졌다. 5명에서 팍팍려 만든 993호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오보에 대해 스스로도 많이 상처받았다. 오보를 둘러싼 교수님들의 오해와 나의 자질 부족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채기를 냈다. ‘내가 계속 학보에 남아야 할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뒤 편집장님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관두는 것이 시원섭섭하지 않고 섭섭하기만 했다. 말하고 나서야 내가 아닌 나의 주변 사람들이 보였다. 내가 관두게 되면 4명에서 학보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나뿐만이 아닌 다른 기자들도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는 조언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나태함과 무책임을 후회한다. 학보에 대한 나의 애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의 책임감도 커져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교수님 중 한 분은 내게 ‘기자는 힘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자가 쓰는 글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것이 이유다. 이 말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다시 시작한다.



유시현 기자

‘내 것’이 없는 시대



▲차량 이동이 필요한 탑승자와 일반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우버(Uber)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나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스트리밍(streaming)’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전에는 인터넷 넷상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기 위해 파일을 내려받았지만 다운로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파일을 재생할 수 없고, 파일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차지하는 불편이 있었다.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하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음악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스트리밍은 음악이나 동영상의 앞부분을 감상하고 있을 때는 뒷부분을 동시에 감상할 수 없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우리가 동영상의 앞부분을 보고 있을 때 컴퓨터는 부지런히 뒷부분을 미리 준

비해놓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파일 전체가 다운로드 되길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음악과 동영상을 감상하는 게 가능해졌다.

스트리밍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희미해진 현대 사회를 잘 반영한 기술이다. 과거에는 테이프나 CD로 음악이나 동영상 전체를 소유해야만 그것을 감상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이나 동영상을 전부 소유할 필요 없이 원하는 부분을 필요한 기간만큼만 ‘빌려’ 쓸 수 있다. 음악이나 동영상뿐만이 아니다. 숙소가 필요한 여행객이 가정집의 빈 방을 빌려 쓰는 것과 남의 자동차를 택시처럼 공유하는 것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점점 더 공유경제의 시대가 되고 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빌리고 차용해 쓰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쓰는 시대는 분명 현대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테지만, 자칫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함부로 사용하고 반납한 것이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편리한 공유경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내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쓰기보다는 ‘우리 것’ 이기에 소중히 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김영환 기자 92youngx@hufs.ac.kr

그림
읽어주는
기자



메두사호와 세월호

1816년, 프랑스 정부 소속 전함인 메두사호가 침몰했다. 메두사호는 이주자와 군인, 의사 등을 태우고 아프리카 식민지 세네갈로 향하는 중이었다. 군함의 함장은 루이 18세의 왕정복고를 기회로 돌아온 쇼마레(Hugues Duroy de Chaumareys)였다. 쇼마레는 프랑스혁명 당시 영국으로 망명했었다. 부패한 왕정복고 세력은 25년 만에 첫 항해를 나선 쇼마레에게 함장 직책을 줬다.

무능한 함장의 실수로 목적지를 100km 정도 앞두고 메두사호는 좌초됐다. 사고는 순전히 함장의 판단 오류에서 비롯됐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그의 오판은 계속됐다. 군함이 당장 침몰할 위험이 없었는데도 배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군함에는 500여 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다. 구명보트는 부족했다. 선장과 고급 장교들은 구명보트에 탔다. 나머지 150여명의 하급 선원과 민간인들은 다급히 뗏목을 만들었다. 뗏목은 보트에 묶어 육지로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보트에 탄 장교 하나가 묶인 끈을 풀어버렸다. 구명보트는 구조선을 불러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망망대해에서 뗏목에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추위와



▲〈메두사 호의 뗏목〉, 테오도르 제리코, 캔버스에 유채, 491x716cm, 루브르 박물관

공포, 굶주림과 싸웠다. 난파된 지 15일 만에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됐다. 살아남은 선원은 15명이었다. 그 가운데 5명은 상륙 직후 사망했다. 최종 생존자는 10명이었다. 구조 당시 뗏목에는 핏자국과 함께 말린 인육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메두사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이 뗏목에서 살아남은 한 외과의사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폭로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메두사호의 사고가 함장의 무능력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이 밝혀지자, 부패한 왕정정부와 관료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다. 그 배에는 수확여행을 가던 안산단원과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가 난 직후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5명의 선원은 가장 먼저 배를 탈출했다. 승객들은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476명 가운데 285명이 사망했다. 미수습자 9명도 있다.

김정록 기자 91rock@hufs.ac.kr

외대학보,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라

유민경(동양어 · 인도어 13)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지난 993호는 전체적으로 위안부 관련 글과 사진이 세 개가 나오는 등 큰 부분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는 것은 좋으나 지난해에 있었던 12·28 합의를 3월호에서 세 편이나 다루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위안부 관련 기사의 양을 줄이고 바로 다음 달에 있을 4·13 총선이나 외대 정기총회에 관해 알려주는 기사를 넣었으면 시기상 더 적절했으며 독자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또한 신문에서 한국의대를 지칭할 때 ‘우리 학교’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정확한 명칭의 사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외대 교내 사람뿐만 아니라 교외 사람도 읽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1면에 바로 잡습니다를 이용해 지난호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좋으나 과거에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적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2면과 3면에서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지 않았고, 흥미 유발보다는 식상한 제목들이 많아서 아쉬웠다. 6면과 7면에서 최근 발생한 외대 학생식당의 학번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다룬 것은 시의 적절했으나, 글의 부적절한 배치로 인해 읽기

에 불편했다. 8면에서 대학생 주택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특정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법만을 소개해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이 방을 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찾아보는 전시회에서는 전시회 장소, 관람 시간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글을 쓴 기자의 정보가 빠져 있었다. 10면의 뒷담하는 기자에서 기자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눈과 귀를 닫으려 하고 학보와 학교에 관심이 없으며 사회, 세계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학보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외대 알리, 교지, 디아저스 등의 다양한 교내 매체들과 비교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물고 싶다. 학보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기사로 독자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오히려 이는 읽는 자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는 일이다.

처음에 기사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마감하는 시간까지 독자의 흥미와 유익함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외대 학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모두가 읽는’ 외대학보를 위해

김주영(통번역 · 독일어 14)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993호는 지난 992호에 이어 많은 교내의 사건들을 전달했으며 분량 또한 적절했다. 다만 지난 호에 이어 작은 부분에서의 섬세함이 아쉽다. 기사의 헤드라인과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 다거나 기사 맥락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낀 부분이 많았다. 특히 여러 행사의 경우, 개최 이유와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년에 총장직속기구로 설립됐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다소 낯선 ‘미래위원회’ 관련 심층 기사가 실렸다. 김원호 위원장이 말한 ‘초연결 시대’를 앞두고면서 우리학교가 취하는 전략적 방향을 알게 된 점은 좋았다. 하지만 흥미성은 다소 떨어졌다.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보도라기보다 단순한 인물 및 기관 소개 느낌이 강해 안타까웠다.

이번 호에서는 12.28 한일 합의와 영화 ‘귀향’ 등으로 다시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이 풀어나간 듯하다. 학우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는 데 좋은 기사란 평이다.

하지만 기획면 기사와 국·부장 고정 칼럼의 중복된 내용으로 다소 반복적인 느낌을 줬다. 같은 소재와 내용에 대해 다수의 기사를 한번에 보도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기사가 더욱 영향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라는 시의적인 요소를 너무 생각한 탓인지, ‘인공지능과 기계, 그리고 인간’에 관한 내용들이 [열린공간의 주를 이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된 사건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전체적으로 보도와 함께 방법이 제시돼, 정보전달 이상의 기능을 하는 기사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뒷담하는 기자’에서 김영환 기자가 지적했듯이 지금은 학보에 대한 무관심이 극심한 상태다. 종이 신문의 쇠퇴하는 운명을 학보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질적 향상뿐 아니라 학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미래적인 고민과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 · 부장 고정칼럼

고양이라고 다 같은 고양이는 아니다

▲이변이 일어났다. 선관위 총선 사전투표 여부 조사 결과 2,30대 청년층의 투표의사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른 세대보다는 낮았지만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투표를 하면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는 명제가 있는 터라 여당은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청년층 환심 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명제가 꼭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청년층의 인식 변화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20대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모든 연령층 중 최저 투표율을 나타냈었다. 무려 ‘20대 〇〇〇’ 문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 20대의 변화가 반갑다. 본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우리학교 학생 1001명 중 840명은 이번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필자 주변의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 없다’ 등등. 귀찮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만 20세로, 이번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생의 첫 정치참여를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내가 선택해야 할 후보들의 공약을 읽었다. 놀랍게도 20대를 위한 공약이 많지 않았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우리를 위한 공약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후보자에게 득 될게 없다는 것, 그만큼 20대의 정치 참여도를 낮잡아본다는 생각에 입이 썩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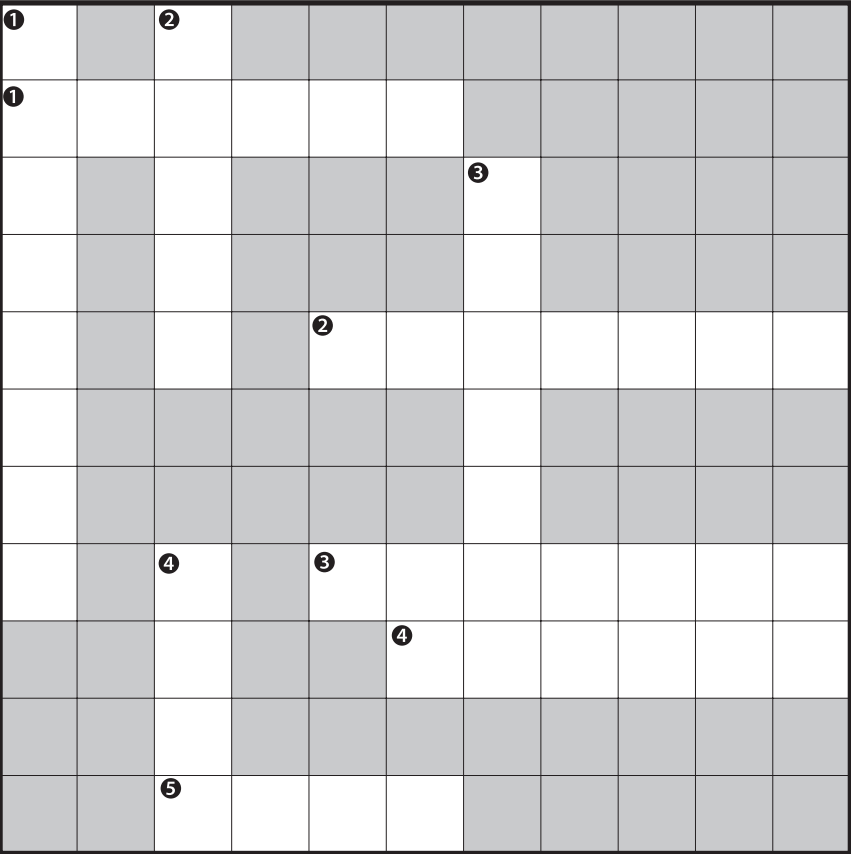
▲ ‘마우스 랜드’라는 책이 있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1962년 의회에서 연설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이다. 쥐들이 모여 사는 마우스랜드에서 항상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다는 간단한 내용이다. 쥐들은 선거 때마다 고양이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뽑는다. 토미 더글러스가 무려 54년 전에 이야기했던 ‘쥐와 고양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실존하며 되풀이되고 있다. 쥐들의 대표가 쥐가 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처럼 보인다.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고양이를 뽑든 고양이는 고양이다’라는 것이라면 ‘쥐가 대표가 될 때까지 더 나은 고양이를 골라내는 것이 유권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다.

만평



그림 유시현 기자

십자말풀이



- 가로**
- 000000은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지만 지난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전 연령 대비 가장 낮았다. (5면 참조)
 - 00000000는 본인이 전공한 지역을 탐색해 지역적 가치를 찾는데 취지를 가진다. (2면 참조)
 -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네 차례 회의를 통해 00000000를 선출했다. (3면 참조)
 - 지난 3월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김종철 제8대 0000000이 개최됐다. (3면 참조)
 - 0000이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이다. (6면 참조)

- 세로**
- 1952년 터키는 00000000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4면 참조)
 - 제4대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총00000선거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2면 참조)
 - 00000000가 재학생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3면 참조)
 - 이번 달 1일부터 글로벌캠퍼스 승차장에서 모현사거리까지 0000 무료탐승이 시행됐다. (2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해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생동하는 캠퍼스

개교 62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세계 외대인 축제’가 펼쳐진다. 해외동문연합회 창립과 더불어 5대양 6대주에 진출한 외대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자리다. 해외에 나가보면 그 어느 대학 보다 많은 동문들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학교는 ‘해가 지지 않는 대학’이란 명성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에 온 유학생들의 국적이 100개국에 이르며 캠퍼스 곳곳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젊은이들과 쉽게 마주칠 수 있다. 필자의 강의에도 프랑스, 독일, 캐나다, 터키, 멕시코, 아제르바이잔 등 다국적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며 열띠게 토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우리학교의 구성원이란 자체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두 세대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에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까지 학교발전엔 헌신해 온 선배들의 ‘흔과 열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열역학에서 다루는 ‘고립되지 않은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내용의 엔트로피(Entropy) 법칙은 조직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조직과 같은 개체도 열린 사고로 끊임없이 상호교류하면 발전에너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짧은 역사임에도 초강대국으로 발전한 에너지의 근원을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 온 이질적 인종간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폐쇄성이 짙은 조직일수록 쇠퇴의 길로 쉽게 들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인차원의 인간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도가 클수록 발전 속도가 빠르다. 반면, 어떤 이유에서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결국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설은 사회심리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 이론에 근거할 때 45개 언어 및 지역학을 바탕으로 인문, 사회, 자연분야의 융합을 추구하는 우리학교는 세계적으로도 그 어느 대학보다 큰 발전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상이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융합’해 간다면 21세기 ‘살아 움직이는 대학’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환경의 영향에 좌우되는 수동적 개체가 아닌 환경을 주도하는 능동적 개체로서 역량을 확장한다면 ‘해가 지지 않는 대학’이란 명성도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봄비를 맞아 피어나는 진달래와 벚꽃 향기에 취해 캠퍼스를 걸으며 생동하는 기운에 가슴을 활짝 펴본다.

벚꽃 피는 캠퍼스는 아직도 춥다

학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캠퍼스에는 하나 둘 벚꽃이 피고 있는데 학교의 봄은 먼 것만 같다. 서울캠퍼스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자처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에야 겨우 선출됐다. 게다가 글로벌 캠퍼스도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양 캠퍼스 나란히 비대위가 꾸려졌다. 양 캠퍼스 동시에 1년 내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이는 학생들이 학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지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있었던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총학생회장단 선거 논란은 학교와 학생의 간극을 보여준다. 21세기에 부정선거 논란이라니,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기에 앞서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 심지어 논란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실 공방전이 예고됐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선거도 엄연한 선거다. 학교는 ‘작은 사회’ 아니었던가.

코어·프라임 사업은 아직까지도 갈등의 축이다. 우리학교는 학교 측의 공표 없이 일부 단과대에서만 코어 사업이 추진돼 문제가 됐고 결국 탈락하자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우리학교는 프라임 사업에 지원하진 않았지만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 타 대학들 역시 반목과 불화를 겪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 구조조정 사업’으로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없이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지난 8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대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프라임 사업에 대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5일에는 근조화환까지 등장했다. 중앙대, 경기대 등 모두 프라임 사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4월, 학교와 학생사회가 얼어붙어 좀처럼 풀릴 생각을 않고 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박은혜 010-9179-9970, 90ir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견진만
편집장 박은혜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퀴어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판결 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웹툰, 연예인의 커밍아웃 등으로 점점 동성애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학교에는 성소수자 모임인 'Q사디아'가 있다.

Q사디아는 '퀴어(Queer)로 사는 게 다*게 아름답다'의 줄임말로 현재 5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친목 위주의 모임으로 비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지난해는 화제(모임에서 퍼내는 기관 잡지)를 발행했고 이번해 말에도 발간할 예정이다. 성소수자의 범위를 LGBTAIQ로 보고 회원을 넓게 받고 있다.

외대학보는 Q사디아 회원 중 3명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들을 레즈비언(Lesbian, 이하 L), 게이(Gay, 이하 G), 바이섹슈얼(Bisexual, 이하 B)로 표기했다. 그들에게 성소수자들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LGBTAIQ :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인 LGBT에서 스스로의 성 지향성이나 정체성에 대해 확정하지 않은 사람(Questionary), 양쪽 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Intersexual), 무성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Asexual)을 더한 것이다

우리는 퀴어다!

 LGBT, LGBTAIQ와 같이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 것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을까?

G : 퀴어(Queer, 성소수자(레즈비언 · 게이 · 양성애자 · 트랜스젠더 등)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다. 퀴어를 많이 쓴다.

L : 정체성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로 선 곳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한다. LGBTAIQ로 성소수자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범주일 뿐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5줄이나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퀴어라고 지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식으로 인준된 타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많은데, Q사디아도 정식 동아리로 인준받을 의사가 있는 지?**

L : 모임 내에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동아리 특성 상 정식동아리로 인준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

B : 하지만 정식으로 동아리가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많은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대학 내에 성소수자 동아리에 대한 현수막 훼손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서울대 성소수자 동아리 퀴이즈(QIS · Queer in SNU)가 걸어놓은 신입생 환영 현수막이 22일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3월 1일 서강대학교에서도 한 교수가 학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을 폐기한 것이 적발됐다.

 **최근 타대학 성소수자 동아리들에서 내건 현수막들이 훼손된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G : 이번 서울대 훼손 건은 훼손의 흔적이 너무나 명백하고 학생회장이 성소수자라는 점에서 더욱 더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다. 이에 Q사디아는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체인 QUM(Queer University)와 함께 성명서를 냈다.

QUV는 성명서를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캠퍼스가 이런 증오범죄의 현장이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QUV는 성소수자 단체를 공격하는 손괴범들에 대해 형법 제336조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라며 범죄임을 지적했다.

자신을 알아갔던 시간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정체화라고 말하는데, 정체화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

L : 사람마다 겪는 방식이 다른 것 같다. 내 경우에는 정체화를 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레즈비언이라고 정체화한 것은 고등학교 2~3학년 때였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고, 사회가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어린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서는 오히려 더 편해졌다. 진정한 나를 찾는 느낌이다.

B :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동성을 좋아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 정체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것은 없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집에 말할 생각은 없다.

G :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안 사정도 어려울 때라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 자신을 정체화하기 했는데 세상에 알리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23살까지 숨어 살았다. 평생 한번 사는 삶인데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군대에 갔다 오서는 도저히 숨기고 못 살겠더라. 24살 때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가 느끼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

성소수자를 둘러싼 편견들

 **우리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로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나?**

G :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남자인 동기가 호모포빅(homophobic,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개인 및 집단)한 글을 SNS에 올렸다.

L : 커밍아웃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정체성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직접적인 차별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성소수자라는 걸 모르고 호모포빅한 발언을 하는 등의 차별은 받는다.

B : 재 게이같다는 말이 그 예다.

G : 여성스러운 남자를 보고 게이같다는 말을 비하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또, 학교 안에 게이샷, 레즈샷 같은 문화가 있다. 다른 학교들은 총학생회에서 아예 성소수자 동아리에 문약해 이 부분에 대한 메뉴얼을 만든다.

L : 아예 게이샷, 레즈샷 이런 것들이 금지된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다. 또, 어떤 교양 수업을 Q사디아 회원 4~5명이 같이 들었던 적이 있다. 교수님이 트랜스젠더를 비하하고 동성연애자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학기 말에 교수님께 호모포빅한 발언이 불편했다고 수업 평가지에 써서 냈다.

 **동성애자들은 에이즈(HIV/AIDS)에 걸릴 수 있다는 편견이 있는데?**

G :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를 공격할 때 흔한 레퍼토리가 바로 HIV 이야기다. 하지만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전염물이 아닐 뿐더러 항문성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병도 아니다. 보균자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경우 5% 내외의 확률로 걸린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게이들은 에이즈 예방과 관리에 큰 관심을 쏟는다. 콘돔 착용은 기본이고 6개월에 한번씩 혈액 검사도 받는다. 혹시 병에 걸렸다고 해도 HIV는 더 이상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다. 하루에 약 1알이면 혈액 검사할 때 검출되지도 않는다.

L : 레즈비언은 그러한 논란에서 언급되지도 않는다. 에이즈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레즈비언들은 존재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 KQCF)는 2000년 이래로 서울에서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다. 이번해 6월로 예정된 '2016 제 17회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달 24일 비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68개 시민단체는 서울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사용을 반대했다.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퀴어문화축제에서 '일몰과 다 노출'과 '일몰 퍼레이드'가 있었으며 국민 정치와 양식에 반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어떤 사람들은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또한 퀴어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G : 미디어에서도 다 이성애만 보여주는데 왜 동성애자가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해에 퀴어문화축제에 처음 갔다. 전날에 너무 행복해 떨려서 잠도 못 잤다. 가보기 전에는 대중매체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출있는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된다. 물론 그들이 노출 있는 복장을 입는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L : 정체성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아직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이다. 그리고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거나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 벽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B : 정체성은 우리가 조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과의 싸움에서 받아들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G : 자기 혼자 숨어 계신 퀴어 분들을 흔히 '벽장'이라고 칭한다. 벽장 분들이 활짝 문을 열어젖히고 '행복'을 맞이하면 좋겠다.